

# 대졸 취업과 관련된 구직활동 요인연구

박완성<sup>1)</sup> · 이형석<sup>2)</sup>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 2월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층 실업률 역시 7.3%로 0.5%p 낮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실업자는 81만 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 3천명이 줄었다. 아울러 취업자수는 2288만 4천명으로 21만명이 증가했다(매일경제신문, 2008년 3월 12일자). 청년 취업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좀 안도의 숨을 쉬어 보지만 만성적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새롭게 출범한 새정부의 커다란 숙원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핵심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학은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당사자에게 다양한 구직을 위한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다.

구명숙·홍상욱(2003)에 의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나 취업을 위하여 준비한 시기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대학 3학년 때부터(33.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 4학년 1학기부터(19.0%)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 4학년 2학기부터라고 응답한 학생이 11.4%에 달하고 있고, 아직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1.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대학 3, 4학년의 2년간이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 이른 시기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취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데,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박완성(2002)은 진로준비행동을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의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대학 졸업생의 채용결정 요인을 분석한 임천순·유진봉(2004)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배경요인 즉 성별 및 군필여부가 대학 졸업생의 채용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

1) 삼육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 삼육대학교 디지털경영학부 교수

요인으로, 다음으로는 학력요인인 대학지명도 및 전공/전문 자격증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경험한 다양한 진로준비활동(구직활동)들이 현재의 직장을 얻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문제

대학 재학시의 구직관련 변수들인 직장 다닌 경험, 어학연수 경험, 졸업전 취업목표, 자격증의 유무가 현재 직장을 얻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을 검증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진로준비행동 관련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말한 김계현(1997)은 우리나라의 진로발달 및 진로상담 이론에서 이 개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로준비행동의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자기 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을 위한 행동이다. 즉, 자기의 적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본다든지,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의논을 한다든지, 취업과 관련된 일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직접 취업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행동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직업에서 실시하는 시험과목을 준비하는 일, 그 직업의 취업절차나 기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일, 원서 및 이력서 등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등의 직접적인 취업 준비 행동을 지칭하였다. 이에 포함되는 실질적인 예로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기타의 활동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이란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진로준비행동’이 김봉환(1997)에 의해서 설정된 개념인 데에 반해 ‘진로탐색행동’이라는 용어는 진로행동(career behavior)에 관한 연구물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서진숙, 1998). Stumpf와 Colarelli 및 Hartman(1983)은 진로탐색행동을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하고 또 입사 후 적응하는데 있어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한 외적인 탐색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Blustein(1990)은 진로탐색이란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과 외부환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서진숙(1998)은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하면서, 진로탐색행동은 정보수집행동과 유

사하게 쓰이고 있지만 진로탐색행동을 정보수집행동 이상으로 보아야 하며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탐색하는 모든 활동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보다는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한다.

김봉환(1997)은 진로발달 및 진로지도 분야에서의 인지와 행동에 관한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즉 그는 진로준비행동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정보수집 활동이다.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과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직업현황, 전망, 입직 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과 같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정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활동은 매우 중요한 진로준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혹은 면허증 취득을 포함하여 자기의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구비하는 작업도 필수적으로 중요한 행동이다. 셋째는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즉,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자료와 도구가 구비되어 있다하여도 시간과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이는 진정한 진로준비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에 있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봉환(1997)은 몇 가지 과정을 통하여 처음에 20개 문항을 선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16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준비행동검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를 보면 반분 신뢰도는 .74, 검사-재검사 신뢰도(2주)는 .82,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84로 나타났다.

김봉환의 연구가 그 대상에 있어서 사범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반면, 서진숙(1998)의 연구는 서울, 지방 소재 대학과 학년과 성별 및 전공이 고루 고려되어 대상을 표집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추출된 하위요인으로는 ‘인쇄물을 통한 정보수집행동’, ‘구직행동’, ‘시험준비행동’, ‘사람과 일을 통한 정보수집행동’, ‘외국어공부행동’의 5가지이다. 완성된 진로탐색행동검사의 전체 평균은 89.4로 4점 척도 중 2점(거의 하지 않는다)에 해당되고 있어 이는 한국대학생들이 진로탐색이나 진로준비를 위해 많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진로지도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도 있지만, 외국의 문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행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 2. 대학 졸업생의 채용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

대학 졸업생의 채용결정 요인을 분석한 임천순·유진봉(2004)의 연구에서는 채용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학점, 연령, 외국어능력, 대학, 정공, 자격증, 해외연수경험, 근로경험, 성별, 군필여부, 학위 등을 설정하였는 바, 이 중에서 개인적 배경

요인 즉 성별 및 군필여부가 대학 졸업생의 채용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다음으로는 학력요인인 대학지명도 및 전공/전문 자격증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Wolbers(2003)는 대학생들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관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 둘째, 직업교육(학교교육 대 작업장을 기반으로 한 직업교육, 또는 실습생 훈련 형태의 두 가지 혼합형)은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에 영향을 준다. 셋째, 학생들이 특정한 직업을 위해 보다 많은 준비를 한다면,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형만 외(2002)의 조사에서는 대학졸업자의 51%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볼 때 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그 변인과 그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대학 재학시의 교육과정에서 주어지는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학 졸업생의 취직과 관련된 구직활동이 취업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고 각 구직활동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Ⅲ.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공된 SPSS 자료를 가지고 연구대상에 대한 주요 빈도분석결과 총 101,37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남자는 46,028명, 여자는 55,346명이었다. 대학, 전공계열 및 졸업연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빈도분석 결과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6028	45.4
	여	55346	54.6
대학	전문대	39429	38.9
	4년제	61732	60.9
	교육대	212	0.2
전공계열	인문	13303	13.1
	사회	23874	23.6
	교육	5781	5.7
	공학	27070	26.7
	자연	14565	14.4
	의약	4088	4.0
	예체능	12693	12.5
졸업연도	2004년	9269	9.1
	2005년	92104	90.9
총계		101373	100

대학재학 시의 구직관련 변수들과 대졸취업의 유무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AnswerTree의 CHAID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였다. 목표변수(target variable)는 직장 또는 일자리의 유무, 예측변수들(predictors)로는 재학 중 직장 다닌 경험, 어학연수 경험, 졸업전 취업목표, 자격증의 유무와 같이 명목형(nominal)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지규칙(stopping rules)은 최대 나무깊이(maximum tree depth)의 뿌리아래의 레벨수는 3, 최소케이스수(minimum number of cases)에서의 부모마디(parent node)와 자식마디(child node)의 수를 각각 50과 25로 지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의사결정나무의 모형 평가

앞서 설정한 정지규칙에 의해 의사결정나무를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전체 마디수는 15개, 전체 레벨수는 3개, 전체 종료마디수는 8개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에 대한 모형구축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먼저 위험도표 결과 값을 보면 위험추정치(risk estimate)가 0.0379로서 구축된 모형이 하나의 관찰치를 오분류(misclassification)할 확률이 3.79%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나무에 의해 자료의 약 96.21%정도가 제대로 분류되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험추정치에 대한 표

준오차는 0.0006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교차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위험추정치가 0.0379, 표준오차가 0.0006으로 교차타당성 평가를 적용하지 않은 모형의 결과와 차이가 나지 않아 모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익도표(gain chart)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이익도표

이익 요약												
목표변수: 직장이나 일자리 유무    목표범주: 있었다												
마디별 이익							누적 이익					
Node	Node:n	Node:%	Resp:n	Resp:%	Gain(%)	Index(%)	Node:n	Node:%	Resp:n	Resp:%	Gain(%)	Index(%)
6	16604	16.37	924	24.02	5.5649	146.7485	16604	16.37	924	24.02	5.5649	146.7484
10	1717	1.69	86	2.24	5.0087	132.0817	18321	18.06	1010	26.26	5.5128	145.3739
4	12802	12.62	623	16.20	4.8664	128.3289	31123	30.69	1633	42.46	5.24692	138.3627
7	11768	11.60	503	13.08	4.27430	112.7145	42891	42.29	2136	55.54	4.9801	131.3256
14	8294	8.18	281	7.31	3.3880	89.3422	5119	50.47	2417	62.84	4.7221	124.5226
11	12719	12.54	405	10.53	3.1842	83.9685	63904	63.01	2822	73.37	4.4160	116.4510
3	27696	27.31	802	20.85	2.8957	76.3610	91600	90.32	3624	94.23	3.9563	104.3295
13	9820	9.68	222	5.77	2.2607	59.6150	101420	100.00	3846	100.00	3.7922	100.0000

<표 2>의 이익도표에서 Node는 <그림 1>의 마디번호를 의미한 것으로 이익점수에 의하여 높은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Index(%)는 해당마디에서의 목표범주가 제대로 분리된 자료수의 비율(Resp: %)이 전체 자료에서의 목표범주의 비율과 얼마나 비교되는지의 측도로서 전체에서 목표범주의 비율이 작아지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민감하지 않고 목표범주의 값이 두드러진 구간을 잘 표현한다는 것이다. <표 2>의 이익도표에서 마디번호가 6인 경우에 Index점수가 146.7485%로 이 마디에 대하여 응답한 비율이 전체자료에 대한 응답비율보다 약1.47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마디에 대한 응답률이 5.56%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0번 마디에서는 Index점수가 132.0817%로 이 마디에 대하여 응답한 비율이 전체자료에 대한 응답비율보다 약1.32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마디에 대한 응답률이 5.0087%임을 알 수 있다.

## 2. 의사결정나무 구조의 해석

나무구조의 뿌리인 맨 위 계층의 목표변수의 빈도분포는 대졸취업자들의 ‘직장 또는 일자리의 유무’에 대하여 ‘있었다’가 3.79%이고 ‘없었다’가 96.21% 로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무구조를 보면 대졸취업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측변수는 ‘자격증 유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무구조에서는 목표변수 자체의 빈도가 나무의 맨 위에 위치하게 되고 각 예측변수 내의 빈도가 계층형으로

위치하는데, 이런 예측변수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변수가 목표변수에 가장 영향력이 높거나 관련성이 깊은 변수라 할 수 있다. 목표변수와 예측변수와의 관련성에 대한 높고 낮음에 대하여 CHAID 방법의 경우 카이제곱 통계량을 통해 측정하게 되는데, <그림 1>의 결과에 보듯이 ‘자격증 유무’와 대졸취업자들의 ‘직장이나 일자리 유무’의 카이제곱 통계량 값은 71.6337이고 이에 대응하는 p값(유의확률)은 0.0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격증 유무’가 목표변수인 대졸취업자들의 ‘직장이나 일자리 유무’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목표변수와 관련이 깊은 변수는 ‘졸업전 취업목표’이며, 그 다음이 ‘재학중 직장을 다닌 경험’과 ‘어학연수 경험’ 인 것을 나무구조에서 볼 수 있다.

나무구조의 뿌리인 목표변수 ‘직장이나 일자의 유무’에서부터 살펴보면 먼저 자격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취업한 경우가 4.14%,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3.05%로 나타났다. 그리고 졸업전 취업목표가 없었다고 응답사람들이 취업한 경우가 5.03%,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3.52%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재학 중 취업목표, 예컨대 기업이나 직장을 선정할 경우에 취업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기업이나 직장에는 취직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한 비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가지의 경우에 재학 중 직장에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5.56%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인 4.27%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에 대한 목표는 없지만 재학 중 직장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자격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이 경우에는 졸업 전 취업목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3.40%로 없는 사람들의 2.7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졸취업과 관련하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졸업 전 취업목표가 없고, 재학 중 직장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졸업 전 취업목표가 있고,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동정책 및 교육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대학 재학시의 구직관련 변수들인 직장 다닌 경험, 어학연수 경험, 졸업전 취업목표, 자격증의 유무가 현재 직장을 얻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01,373명을 연구대상으로 AnswerTree의 CHAID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취업과 관련하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졸업 전 취업목표가 없

고, 재학 중 직장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졸업 전 취업목표가 있고,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첫째, 자격증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정표(1994)가 고용주들이 ‘전문기술능력(전문자격증)’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44.6%), 중요하다(37.8%)고 말하고 있어 합하면 82.4%가 채용결정 요인으로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둘째,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재학 중 직장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채창균 외(2002)가 연구한 것처럼 근로경험이 취업으로의 이행기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자격증이 있는 경우 졸업전 취업목표가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목표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특별히 취업에 대한 목표가 없어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자격증이 없는 경우, 졸업전 취업목표가 있고,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해외연수 경험에 대하여 장원섭 외(2000)는 채용결정요인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와 기대효과 및 활용방책으로는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학 정책 수립에 기여하되 교육과정 및 진로취업 프로그램의 신속한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패널자료의 특성상 진로준비행동, 채용결정 요인의 일부만 다루었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과 채용결정 요인을 다 추적하지는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 참고문헌

- 구명숙·홍상욱(2003). 여대생의 취업의식 및 취업준비도 실태조사. *여성연구논집*, Vol. 14,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pp. 5-36.
- 김계현(1997). *상당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형만 외(2002). 전문대, 대학 졸업생 취업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완성(2003). 고등학교 대상 진로준비행동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Vol. 15, No. 2, pp. 119-141.
- 서진숙(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표(1994). 기업체의 채용, 승진과정에 나타나는 학력의 기능분석-대졸자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천순·유진봉(2004). 대학졸업생의 채용결정요인 분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Vol. 22, No. 4, pp. 311-332.
- 장원섭 외(2000).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외(200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매일경제신문, 2008년 3월 12일자
- Blustein, D. L. (1990). *Explorations of the career exploration literature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Boston, MA.
-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191-226.
- Woolbers, M.(2003). Job Mismatches and their Labour-Market Effects Among School-leaver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19, N.3(JUL), pp. 249-266.

S03. 직장이나 일자리 유무

Cat.		%	n
있었다	3.79	3846	
없었다	<b>96.21</b>	<b>97574</b>	
Total		(100.00)	101420

문53. 재직증 유무

P-value=0.0000; Chi-square=71.6337; df=1

